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28	03. 07	03. 14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신약통독-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시오.
2. 사순절(2월17~4월3일) 기간 동안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 온라인 헌금-정용현 회계집사님께 문의해주시시오(0176 6128 8317)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이사	강희수 자매 :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1. Fastenzei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64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이수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11 : 32 - 38(신p166) 이수현 집사
(Johannes 11:32~38)
- 설 교 Predigt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67장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나 교회를 섬기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머무르는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단 몇 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아침 시간에 30분씩이나 기도와 성경 읽기에 할애하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결과로 우정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얘기할 가치가 있었는가?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함으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집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데 그 일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온 세상이 정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소수에 속하려는 노력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서슴없이, 큰 소리로 ‘물론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당연히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천 번 이상이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باتم 섬에서 온 편지 / Anne Graham Lotz
(미국 AnGel 미니스트리 단체 설립자)

* 고통 중에서 우리는 통상 가장 맛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 John Bunyan(1628~1688년) -